

“내년에 또 만나요”... 전국체전 폐회식



제99회 전국체전 폐막식이 진행된 18일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각 시도 선수단기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정현을 시장에게 공포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종합성적 3위... 목표 달성

작년 11위보다 8계단 뛰어올라... 역도 유동주 3관왕·육상 심종섭·수영 조재승 등 2관왕 차지
학교체육 성장·유관기관 협업 통한 분야별 지원·선수 맞춤형 프로그램·전술분석 등 주요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전라북도가 목표인 종합성적 3위를 달성했다. 지난 12일부터 7일간 익산 등 전북일원에서 진행된 체전의 성공적인 진행과 함께 종합 3위 목표를 달성,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체전 폐막일인 18일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북도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위보다 8계단을 뛰어 오른 성적이다. 47개 전 종목에 참가한 전북도 선수단은 금메달 59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96개 등 모두 223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성적 4만9751점을 얻어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를 달성했다. 2위인 서울과는 불과 609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다는 평가다. 주요 입상종목으로는 전주고, 국군체육부대 농구팀과 배구(남성고, 국군체육부대), 핸드볼(전북체고), 자전거 여고부(전북체육고), 양궁 여자일반(전북도청)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역도 유동주(진안군청) 선수가 3관왕을 육상 심종

섭(한국전력), 수영 조재승(전북체고) 선수 등이 2관왕을 차지했다. 전북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체육의 눈부신 성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과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선수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현장 피드백과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전술분석 등이 중요했다고 자평했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향후 전북체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에 주력하여 선수 연계 육성 체제 구축으로 엘리트 선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시·군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특화종목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내년 100회계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우수선수 확보와 실업팀 창단 및 대학·실업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력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청 펜싱선수단, 2위로 체전 마무리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중인 익산시청 펜싱팀이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선전을 펼치며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 1개와 남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 익산시청 펜싱팀은 여자 사브르 개인전 김지연 선수 금메달, 남자 에페 개인전 권영준 선수 은메달을 포함,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 아쉽게도 그동안 노련한 결실을 맺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은 17일 준결승전에서 강원도를 45-20로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전에 올라 안산시청에 접전 끝에 45-41로 아쉽게 분패했다.

남자 에페 단체전은 17일 준결승전에서 부산광역시를 45-30으로 누르고 18일 결승전에서 화성시청을 상대로 45-41로 패해 남녀 단체전에서 모두 아쉬운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전국체전을 마무리하는 익산시청 펜싱팀은 그동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오면서 익산시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특목한 역할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선전한 펜싱선수단에게 축하와 격려를 건넨다”며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실을 전국체전에서 맺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호원대, 체전서 금2·은3·동3 차지... 학교 위상 드높여

호원대학교(총장 김희성) 스포츠단(단장 이명찬 교수)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됐다.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의 첫 메달은 지난 14일 펜싱 여자 일반부 에베로 출전한 이지희 선수(스포츠학부 4학년)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동메달을 안겨주며 첫 승전보를 알렸다. 이후 15일 태극권전능으로 출전한 서희성 선수(스포츠경호학부 2학년)가 19.300의 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어서 씨름부 강유성 선수(무도경호학부 3학년)가 대학부 장사급에서 동메달을 확보하며, 호원대학교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었다. 16일 남권전능 이용문 선수(무도경호학부 4학년)가 29.140의 점수로 금메달을, 같은 남권전능인 이한성 선수(무도경호학부 3학년)는 28.790의 점수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또한 정권전능 이용현 선수(무도경호학부 4학년)가 은



대학부 장사급에서 3위를 달성한 씨름부 강유성 선수. 메달을 획득하였고, 산타 70kg으로 출전한 송기철 선수(무도경호학부 3학년)이 은메달을 가져왔다. 마지막 폐막식 날인 18일 펜싱부 송준섭 선수(스포츠학부 3학년)가 에베-단체로 출전하여 값진 은메달 수확을 끝으로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군산=김정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열린의회, 알찬의정

제8대 순창군의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제8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천년의장맛! 백년의미소!

제13회 순창장류축제

- 10. 19(금) ~ 10.21(일) 3일간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

- 의정상담센터 운영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 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